

##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Level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이주연(Joo-Yeon Lee)<sup>1)</sup>

이석호(Sokho Lee)<sup>2)</sup>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obtain information about parenting and examined the natur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in order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The mothers' age and educational level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influential factor on parenting knowledge. Four hundred and twenty-nine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ssued regarding the source and content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parenting knowledg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thers with only one child preferred to utilize their friends and relatives as their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nd the mothers with more than one child acquired parenting information from their own previous experience. Second, the subjects were most interested in acquiring information related to physical development and medical problems. Third, the main effects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In addition, the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the educational level and source of parenting information for the mother with only one child and the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age and source of parenting information for the mother with more than one child were determin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high-risk groups when it comes to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knowledge and we suggest providing valid and reliable information to these most vulnerable groups.

**Key Words** :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infants & toddlers), 양육정보(parenting information), 양육정보 습득경로(source of parenting information),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sup>1)</sup>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sup>2)</sup>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E-mail : idscot@chonnam.ac.kr

## I. 서 론

현대사회를 흔히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발달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다양한 이유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이들에게 정보의 부재에 의한 어려움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양육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구하는 부모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양육에 관한 정보는 TV나 인터넷, 책, 잡지는 물론 친인척과 이웃, 친구, 그리고 교사나 상담사, 의사, 간호사, 아동발달가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며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부모의 정확한 양육지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는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발달의 이후 영향력이 다른 시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부담을 가지며,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이기도 하다(박성연 외, 2003). 특히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에게 있어 해당 시기는 그들의 인생주기에서 부모됨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혹은 적은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많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역할은 그 역할 범위가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부

담일 수 있다(Bigner, 2006). 이러한 이유로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양하면서도 정확한 양육정보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부모들이 얻은 양육정보는 그들의 양육지식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물론 양육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의 양육지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Riley & Waterston, 2002), 자녀에 대한 발달적 기대 및 기준을 제공한다(Conrad, Fogg, & Rucgala, 1992; MacPhee, 1984; Miller, 1988). 또한 부모의 양육지식과 아동발달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확한 양육지식이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Larsen & Juhasz, 1986; Stevens, 1984),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윤형주·조복희, 2004; Altman-Klein & Cordell, 1987; Hunt & Paraskewopulos, 1990). 따라서 부모가 얼마만큼 정확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가는 그들의 양육은 물론 아동발달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떤 경로로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가? 그리고 부모들은 어떤 내용의 양육정보를 얻고 있으며 또 더 얻고자 하는가? 그들은 자신이 얻고 있는 양육정보에 만족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기술적인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양육정보의 습득경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양육정보에 대한 부모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양육정보 및 지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

를 규명(김정화, 1999; 윤형주 · 조복희, 2004; 이근영 · 장유경 · 임현정, 2004; 최유리, 2006; 홍순옥 · 김성혜, 2008; Maloni, 1994; Parks & Smeriglio, 1983; Reich, 2005; Richman, Miller, & LeVine, 1992; Tamis-Lemonda, Chen, & Bornstein, 1998; Tamis-Lemonda, Shannon, & Spellman, 2002)하거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과 실제 아동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의 영향력(송연숙 · 김영주, 2008; 이선미 · 장정미, 2009; 이주연, 2009; Larsen & Juhasz, 1986; Mann, Pearl, & Behle, 2004; Stevens, 1984) 등을 분석하였을 뿐, 양육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습득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을 구성하는 기본 자료인 양육정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조사함으로써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마도 관련 서적을 읽거나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거나 혹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주변인들에게 질문할 것이다. 이처럼 양육에 필요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양육정보 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보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데서 끝나서는 안되며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지식의 정확성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부모들의 실제적인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더 나아가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별 부모들에게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양육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신뢰성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양육지식을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양육정보의 습득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외국의 경우도 미미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부모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하는지와 관련하여, Stevens(1984)는 흑인 청소년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면서 어머니를 중요한 양육정보의 출처로 지적하였다. 반면, Goodnow(1988)는 양육경험과 양육지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녀를 양육해본 개인의 이전 경험이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과정임을 언급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양육정보 습득경로를 직접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이 양육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경로는 책, 잡지, 팸플렛의 순으로 나타난다(Sparling & Lowman, 1983). 또한 양육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들이 정기간행 정보지, 의사나 간호사, 책과 잡지, 친구와 또래부모 등의 순으로 정보의 유용성을 지적하였다는 결과도 있다(Riley, Meinhardt, Nelson, Salisbury, & Winnett, 1991). 이처럼 책이나 정보지 역시 주요한 양육정보 출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려 20년 전의 연구결과이며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Bornstein & Cote, 2004). 그러나 개인의 어떠한 특성이 습득경로의 선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하여 Ninio(1979)는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어머니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이웃을 통해 양육정보를 얻는 반면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상류계층의 어머니들은 의사나 상담가 등의 전문가들에게서 양육정보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10대 청소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경우 주변인 등의 비형식적인 경로를 통해 양육정보를 얻는 경향이 높다(Riley & Waterston, 2002).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양육정보제공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Riley et al., 1991)에서는 양육정보를 필요로 하는 취약집단의 구분기준으로 학력, 연령, 취업여부, 이혼여부, 사회적 지지부재, 기초생활 수급 정도의 낮은 경제수준 등을 들고 있다. 이는 해당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양육정보의 습득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임을 시사한다.

부모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할 때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경로의 다양성보다는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일 것이다. 그러나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육정보의 질이나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가 더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양육정보 자체의 내용과 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성되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수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지식체계가 완성된다고 볼 때(Goodnow, 1988), 후자의 방법은 오히려 정보의 내면화와 체계화의

측면에서 보다 실제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그들의 양육지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그 중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지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다(김정화, 1999; 윤형주·조복희, 2004; 이근영 외, 2004; 이주연, 2009; 최유리, 2006; 홍순옥·김성혜, 2008; Benasich & Brooks-Gunn, 1996; 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Richman et al., 1992; Reich, 2005). 한편, 어머니의 연령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이근영 외, 2004; 이주연, 2008; 이화자·이승아·김명희·김영혜·박남희, 2004; Benasich & Brooks-Gunn, 1996; Furstenberg, Brooks-Gunn, & Chase-Lansdale, 1989; Miller & Moore, 1990)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윤형주·조복희, 2004; 최유리, 2006; Reich, 2005)가 모두 보고된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양육정보의 습득경로와 그들의 양육지식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에서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양육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력 및 연령변인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자녀수에 따라 한 자녀 어머니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첫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와 여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양육경험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지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견해(Goodnow, 1984, 1988)를 근거로 한다.

본 연구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대한 탐색적 조사를 통해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정보 습득경로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고,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정확성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및 학력)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및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42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3세였으며,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력은 대졸이 154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123명(28.7%), 전문대졸이 121명(28.2%), 대학원 이상이 26명(6.1%) 순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33.6%였고 201만원에서 400만원의 경우 46.6%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가 136명(31.7%)이었으며, 2명인 경우는 220명(51.3%), 3명 이상은 71명(13.8%)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9.1개월이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224명(52.2%) 여아가 200명(46.6%)으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429)

|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
| 연령       | 20대       | 149(34.9) | 취업여부   | 취업        | 123(28.7) |
|          | 30대       | 259(53.6) |        | 비취업       | 304(70.9) |
|          | 40대       | 21( 5.0)  | 자녀수    | 1명        | 136(31.7) |
| 학력       | 고졸이하      | 123(28.7) |        | 2명        | 220(51.3) |
|          | 전문대졸      | 121(28.2) |        | 3명        | 59(13.8)  |
|          | 대졸        | 154(35.9) |        | 4명        | 12( 2.8)  |
|          | 대학원졸      | 26( 6.1)  | 자녀의 성별 | 남아        | 224(52.2) |
| 가정의 수입   | 200만원 이하  | 144(33.6) |        | 여아        | 200(46.6) |
|          | 201-300만원 | 112(26.1) | 자녀의 연령 | 12개월 이하   | 136(31.7) |
|          | 301-400만원 | 88(20.5)  |        | 13-24개월   | 157(36.6) |
| 401만원 이상 | 77(18.0)  | 25-36개월   |        | 134(31.2) |           |

주. 결측치로 인해 빈도의 합이 전체사례수와 다르며 백분율의 합도 변인마다 차이가 있음.

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구분하여 사회적 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자녀 어머니집단의 경우 평균연령은 30.6세였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55.9%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31.6%, 201-300만원이 27.9% 순이었고, 취업한 경우가 35.3%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5.9%였고, 자녀의 연령은 12개월 이하가 32.4%, 13-24개월이 35.3%, 25-36개월이 32.4%로 나타났다. 한편 두 자녀 이상 어머니집단의 평균연령은 33.1세로 한 자녀 어머니보다 높았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35.4%, 고졸이하가 33.3%로 한 자녀 어머니집단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34.7%, 201-300만원이 25.1% 등으로 나타났고, 취업한 경우가 24.8%로 이 또한 한 자녀 어머니집단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0.9%였으며 연령은 12개월 이하가 31.6%, 13-24개월이 37.5% 등으로 나타나 한 자녀 어머니집단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두 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두 집단 간에 양육경험의 유무에서 이미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 2. 측정도구

### 1) 양육정보

양육정보에 대한 질문은 양육정보 습득경로(1 문항), 양육정보의 내용(2문항), 양육정보에 대한 만족도(5문항) 등 3가지를 포함한다.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양육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에 대해 1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양육정보의 내용은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언어발달, 영유아용품 및 보육시설, 훈육 및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정보 중 주로 얻고 있는 정보와 더 얻기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각각 1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만족도 문항은 양육정보의 각 내용에 해당하는 5개 문항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2) 양육지식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MacPhee, 1981)의 75문항 중 주관식 7문항을 제외한 68문항을 사용하였다. KIDI 원칙도는 양육행동지식(12문항), 발달과정지식(17문항), 건강안전지식(11문항), 발달규준지식(28문항)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분없이 문항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KIDI 문항은 문항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일반적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중 응답하도록 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발달연령을 포함하는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이후에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응답에 대한 채점은 원칙도의 채점방식에 따라 정답일 때 1점, 오답일 때 -1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0점을 부과하여, 가능한 점수범위는 -68점에서 68점이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을 조사하였다. 이 밖에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업유무, 가정의 수입, 자녀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월령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양육정보, 양육지식,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편의 표집에 의해 서울시와 광주시에 있는 소아과, 어린이집, 교회 등의 도움을 얻어 총 550명을 표집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들에게 배부된 550부의 설문지 중 457부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4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양육정보 습득의 경향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경로를 자녀수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이전 양육경험이 없는 한 자녀 어머니의 경우 136명의 응답자 중, 47명(34.6%)이 이웃, 친구 및 도우미 등 주로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41명(30.1%)은 인터넷과 TV 등을 꼽았으며 28명(20.6%)은 책, 잡지 등의 인쇄물을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응답하였다. 이 밖에 부모 13명(9.6%), 전문가 7명(5.1%)의 응답 순을 보였다. 한편, 두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의 경우는 응답자 291명 중 55.0%인 160명이 본인의 이전 양육경험을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인(53명/18.2%), 책(26

명/8.9%), 인터넷(23명/7.9%), 부모(16명/5.5%), 전문가(10명/3.4%), 기타(3명/1.0%)의 순으로 양육정보의 출처를 보고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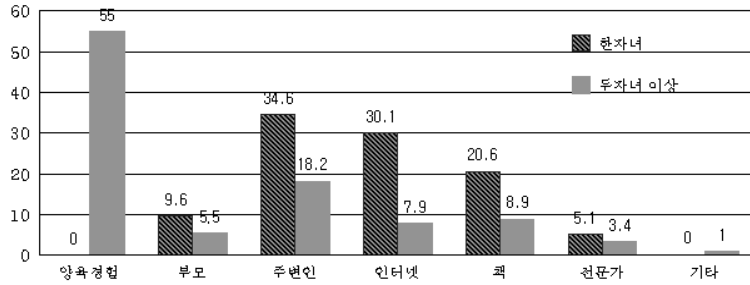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신체발달 및 의학 관련 정보가 전체 응답자 429명 중 62.7%(269명)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훈육방법에 대한 정보는 49명(11.4%)이,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정보는 39명(9.1%)이 주로 얻는 정보로 보고하였다. 자녀수에 따라 비교한 <그림 2>에 의하면, 이전의 양육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때 신체발달 및 의학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었던 반면, 훈육에 대한 정보는 특히 두 자녀 이상 어머니가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매우 만족한다' 5점 만점에 신체 3.41점, 사회정서 3.35점, 인지언어 3.37점, 아기용품 및 보육시설 3.34점, 훈육방법 3.42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정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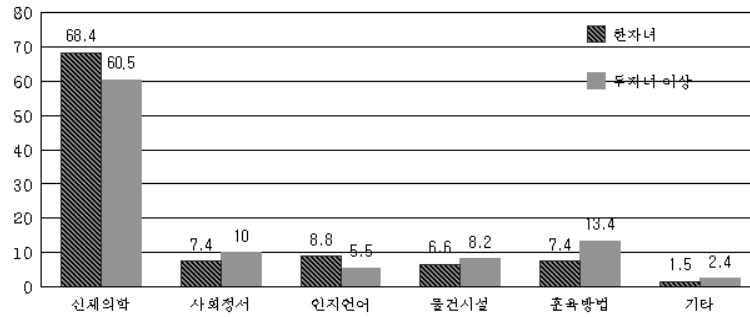
또한 더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물었을 때, 133명(31.0%)의 응답자가 신체발달 및 의학 정보라고 응답하여 현재 주로 얻고 있는 정보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116명(27%)의 응답자가 훈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자녀수에 따라 비교한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자녀 어머니의 경우 훈육방법(31.6%)에 대한 요구비율이 높았던 반면,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32.0%는 신체발달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얻기 원하는 등 영역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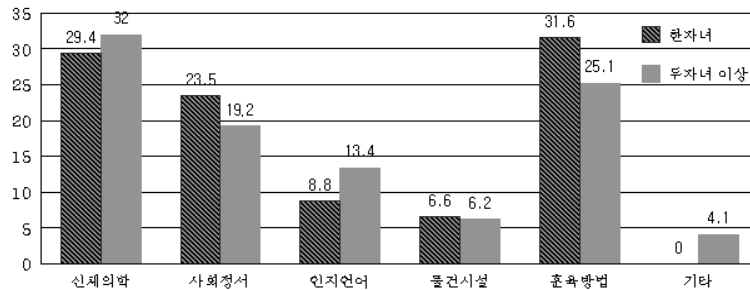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에서 그 관련



<그림 1> 양육정보 습득경로



<그림 2> 양육정보의 주요내용



<그림 3> 더 알고자 하는 양육정보의 내용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령과 학력 집단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내용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책/인터넷/전문가’ 등의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령과 학

력은 집단들 간의 사례수 비율을 감안하여 연령은 ‘20대’와 ‘30대 이상’의 2개 집단으로, 학력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이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한 자녀 어머니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 2), 어머니의 연령집단에 따라서만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71, p < .05$ ). 즉, 20대의 60.7%가 인터넷/책/



<표 2> 한자녀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양육정보 습득경로

| 변인 | 집 단    | 부모/주변인<br>N (%) | 인터넷/책/전문가<br>N (%) | $\chi^2$ |
|----|--------|-----------------|--------------------|----------|
| 연령 | 20대    | 24(39.3)        | 37(60.7)           | 3.71*    |
|    | 30대 이상 | 32(57.1)        | 24(42.9)           |          |
|    | 전체     | 56(47.9)        | 61(52.1)           |          |
| 학력 | 고졸이하   | 13(54.2)        | 11(45.8)           | 5.59     |
|    | 전문대졸   | 16(64.0)        | 9(36.0)            |          |
|    | 대졸이상   | 28(38.4)        | 45(61.6)           |          |
|    | 전체     | 57(46.7)        | 65(53.3)           |          |

\* $p < .05$ .

전문가에게서 양육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반면 30대 이상은 57.1%가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습득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두 자녀이상의 어머니는 학력집단( $\chi^2 = 10.69$ ,  $p < .05$ )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세 학력집단 각각에서 약 55% 정도의 응답자가 이전의 양육경험을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응답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응답자들 중, 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 28.2%가 인터넷/책/전문가를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하고 15.5%만이 부모/주변인을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이하의 응답자는 29.8%가 그리고 전문대졸인 응답자는 28.4%가 부모/주변인을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하여 대졸이상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들이 실제적

<표 3>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양육정보 습득경로

| 변인 | 집 단    | 이전양육경험<br>N (%) | 부모/주변인<br>N (%) | 인터넷/책/전문가<br>N (%) | $\chi^2$ |
|----|--------|-----------------|-----------------|--------------------|----------|
| 연령 | 20대    | 50(60.2)        | 22(26.5)        | 11(13.3)           | 4.48     |
|    | 30대 이상 | 98(53.6)        | 40(21.9)        | 45(24.6)           |          |
|    | 전체     | 148(55.6)       | 62(23.3)        | 56(21.1)           |          |
| 학력 | 고졸이하   | 53(56.4)        | 28(29.8)        | 13(13.8)           | 10.69*   |
|    | 전문대졸   | 48(54.5)        | 25(28.4)        | 15(17.0)           |          |
|    | 대졸이상   | 58(56.3)        | 16(15.5)        | 29(28.2)           |          |
|    | 전체     | 159(55.8)       | 69(24.2)        | 57(20.0)           |          |

\* $p < .05$ .

으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의 유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양육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양육지식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지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및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1) 한 자녀 어머니의 양육지식

한 자녀 어머니의 양육지식 점수는 -2점에서 44점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25.56 표준편차

8.66이었다. 양육지식에 대한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4>에,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양육지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주효과 ( $F = 13.57, p < .001$ )에 의하면, 20대( $M = 24.41, SD = 6.20$ )에 비해 30대 이상( $M = 27.79, SD = 5.99$ )인 어머니들이 더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다. 양육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서는 양육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 = 5.33, p < .05$ ), 부모/주변인 경로( $M = 24.41, SD = 7.76$ ) 보다는 인터넷/책/전문가 경로( $M = 27.03, SD = 6.58$ )를 통해 정보를 얻는 집단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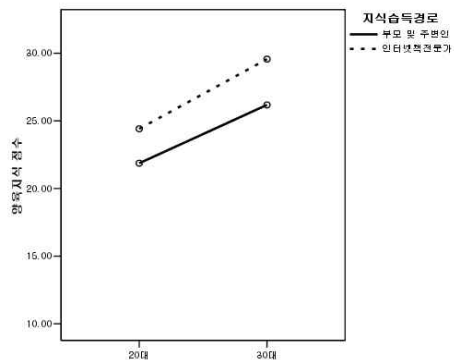
<표 4>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 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연령      | 632.70   | 1   | 632.70 | 13.57*** |
| 습득경로    | 248.27   | 1   | 248.27 | 5.33*    |
| 연령*습득경로 | 4.99     | 1   | 4.99   | .11      |
| 오차      | 5173.92  | 111 | 46.61  |          |
| 합계      | 82306.00 | 115 |        |          |

\* $p < .05$ . \*\*\* $p < .001$ .

<표 5>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 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 연령     | 습득경로      | N   | M     | SD   |
|--------|-----------|-----|-------|------|
| 20대    | 부모/주변인    | 23  | 21.87 | 8.02 |
|        | 인터넷/책/전문가 | 29  | 24.41 | 6.20 |
|        | 합계        | 52  | 23.29 | 7.10 |
| 30대 이상 | 부모/주변인    | 33  | 26.18 | 7.17 |
|        | 인터넷/책/전문가 | 30  | 29.57 | 5.99 |
|        | 합계        | 63  | 27.79 | 6.80 |
| 전체     | 부모/주변인    | 56  | 24.41 | 7.76 |
|        | 인터넷/책/전문가 | 59  | 27.03 | 6.58 |
|        | 합계        | 115 | 25.76 | 7.26 |



<그림 4>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 경로의 효과

정확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양육지식에 대한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 자녀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에 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6>은 양육지식에 대한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먼저 학력에 따라 양육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 = 20.57, p < .001$ ), 사후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 고졸이하 집단( $M = 18.05, SD = 11.06$ )이 전문대졸 집단( $M$

$= 24.95, SD = 8.78$ )과 대졸이상 집단( $M = 29.31, SD = 7.93$ )보다 양육지식 점수가 낮았으며 전문대졸 집단도 대졸이상 집단보다 양육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서도 양육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10.35, p < .001$ ).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주로 얻는 집단( $M = 22.72, SD = 11.57$ )이 인터넷/책/전문가에게서 정보는 얻는 집단( $M = 27.75, SD = 7.65$ )보다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다.

양육지식에 대한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효과( $F = 4.01, p < .05$ )는 <그림 5>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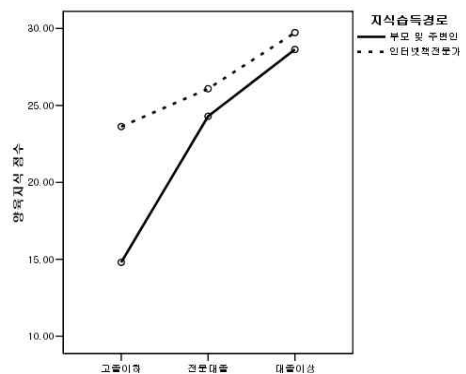
<표 6>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학력      | 1787.20  | 2   | 893.60 | 20.57*** |
| 습득경로    | 409.58   | 1   | 409.58 | 10.35*** |
| 학력*습득경로 | 327.46   | 2   | 163.73 | 4.01*    |
| 오차      | 5039.80  | 116 | 43.45  |          |
| 합계      | 89922.00 | 122 |        |          |

\* $p < .05$ . \*\*\* $p < .001$ .

<표 7>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 연령    | 습득경로      | N   | M     | SD    |
|-------|-----------|-----|-------|-------|
| 고졸 이하 | 부모/주변인    | 13  | 14.80 | 11.61 |
|       | 인터넷/책/전문가 | 11  | 23.63 | 7.43  |
|       | 합계        | 24  | 18.06 | 11.06 |
| 전문대졸  | 부모/주변인    | 16  | 24.29 | 10.09 |
|       | 인터넷/책/전문가 | 9   | 26.08 | 5.96  |
|       | 합계        | 25  | 24.95 | 8.78  |
| 대졸 이상 | 부모/주변인    | 28  | 28.64 | 8.43  |
|       | 인터넷/책/전문가 | 45  | 29.73 | 7.63  |
|       | 합계        | 73  | 29.31 | 7.93  |
| 전체    | 부모/주변인    | 57  | 22.72 | 11.57 |
|       | 인터넷/책/전문가 | 65  | 27.75 | 7.65  |
|       | 합계        | 122 | 25.15 | 10.17 |



<그림 5>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잘 나타나있다. 전문대졸 집단이나 대졸이상 집단은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각 집단 내에서 양육지식 점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고졸이하 집단의 경우 인터넷/책/전문가 경로의 양육지식 점수( $M = 23.63, SD = 7.43$ )에 비해 부모/주변인 경로의 양육지식 점수( $M = 14.80, SD = 11.61$ )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면서 부모/주변인에게 양육정보를 얻는 집단이 양육지식면에서 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2)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지식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점

수는 -6점에서 46점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은 24.97, 표준편차는 10.94였다. 먼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인 <표 8>, <그림 6>과 <표 9>는 어머니의 연령집단( $F = 19.49, p < .001$ )과 양육정보 습득경로( $F = 8.62, p < .001$ )에 따라 양육지식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양육지식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F = 3.23, p < .05$ ).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20대( $M = 20.43, SD = 10.33$ )에 비해 30대 이상( $M = 26.87, SD = 10.65$ )인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점수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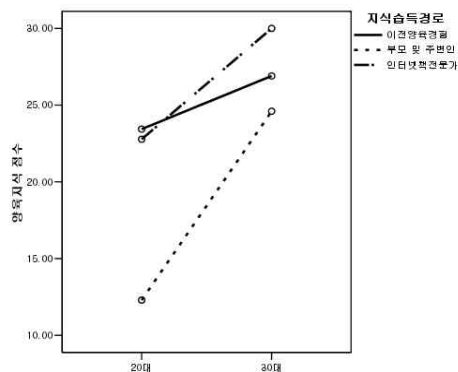
<표 8>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 변량원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연령      | 2038.74   | 1   | 2038.74 | 19.49*** |
| 습득경로    | 1803.03   | 2   | 901.51  | 8.62***  |
| 연령*습득경로 | 675.68    | 2   | 337.84  | 3.23*    |
| 오차      | 24476.45  | 234 | 104.60  |          |
| 합계      | 180071.00 | 240 |         |          |

\* $p < .05$ . \*\*\* $p < .001$ .

<표 9>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 연령     | 습득경로      | N   | M     | SD    |
|--------|-----------|-----|-------|-------|
| 20대    | 이전양육경험    | 39  | 23.44 | 9.11  |
|        | 부모/주변인    | 17  | 12.29 | 10.83 |
|        | 인터넷/책/전문가 | 9   | 22.78 | 5.83  |
|        | 합계        | 65  | 20.43 | 10.33 |
| 30대 이상 | 이전양육경험    | 98  | 26.90 | 10.11 |
|        | 부모/주변인    | 45  | 24.60 | 12.83 |
|        | 인터넷/책/전문가 | 32  | 30.00 | 8.15  |
|        | 합계        | 175 | 26.87 | 10.65 |
| 전체     | 이전양육경험    | 137 | 25.91 | 9.93  |
|        | 부모/주변인    | 62  | 21.23 | 13.42 |
|        | 인터넷/책/전문가 | 41  | 28.41 | 8.15  |
|        | 합계        | 240 | 25.13 | 10.92 |



<그림 6>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높았다.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이전양육경험 경로( $M = 25.91, SD = 9.93$ )와 인터넷/책/전문가 경로( $M = 28.41, SD = 8.15$ )에 비해 부모/주변인 경로( $M = 21.23, SD = 13.42$ )로 정보를 얻는 집단이 더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그림 6>에 의하면, 20대이면서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인다. 그리고

30대 이상이면서 인터넷/책/전문가에게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두 자녀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 ( $F = 22.36, p < .001$ ) 및 양육정보 습득경로( $F = 4.91, p < .01$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그림 7, 표 11).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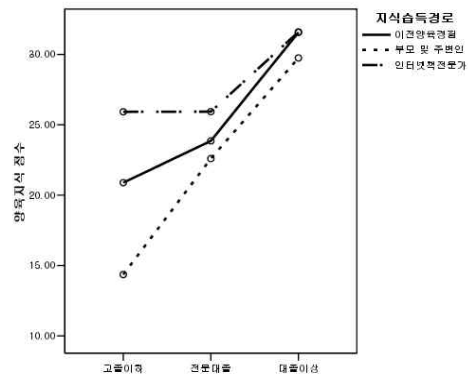
<표 10>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연령      | 4166.00   | 2   | 2083.00 | 22.36*** |
| 습득경로    | 914.50    | 2   | 457.25  | 4.91**   |
| 연령*습득경로 | 579.76    | 4   | 144.94  | 1.56     |
| 오차      | 25342.81  | 272 | 93.17   |          |
| 합계      | 210070.00 | 281 |         |          |

\*\* $p < .01$ . \*\*\* $p < .001$ .

<표 11>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 연령    | 습득경로      | N   | M     | SD    |
|-------|-----------|-----|-------|-------|
| 고졸 이하 | 이전양육경험    | 53  | 20.89 | 10.88 |
|       | 부모/주변인    | 28  | 14.36 | 13.37 |
|       | 인터넷/책/전문가 | 13  | 25.92 | 7.26  |
|       | 합계        | 94  | 19.64 | 11.82 |
| 전문대졸  | 이전양육경험    | 48  | 23.85 | 8.14  |
|       | 부모/주변인    | 25  | 22.30 | 11.23 |
|       | 인터넷/책/전문가 | 15  | 25.93 | 6.51  |
|       | 합계        | 88  | 23.85 | 8.87  |
| 대졸 이상 | 이전양육경험    | 58  | 31.57 | 7.27  |
|       | 부모/주변인    | 16  | 29.75 | 10.72 |
|       | 인터넷/책/전문가 | 25  | 31.60 | 9.70  |
|       | 합계        | 99  | 31.28 | 8.48  |
| 전체    | 이전양육경험    | 159 | 25.68 | 9.96  |
|       | 부모/주변인    | 69  | 20.91 | 13.34 |
|       | 인터넷/책/전문가 | 53  | 28.60 | 8.67  |
|       | 합계        | 281 | 25.06 | 10.95 |



<그림 7>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차이를 사후검정 결과, 고졸이하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 $M = 19.64$ ,  $SD = 11.82$ )를 보였으며 전문대졸 집단은 중간 점수( $M = 23.85$ ,  $SD = 8.87$ )를 그리고 대졸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양육지식 점수( $M = 31.28$ ,  $SD = 8.48$ )를 보임으로써 한자녀 어머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정결과는, 양육정보의 주요 습득경로가 이전양육경험인 집단( $M = 25.68$ ,  $SD = 9.96$ )과 인터넷/책/전문가인 집단( $M = 28.60$ ,  $SD = 8.67$ )에 비해 부모/주변인인 집단( $M = 20.91$ ,  $SD = 13.34$ )의 양육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양육의 역할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 각 경로를 통해 얻은 양육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그들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양육지식 습득과정을 조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진 양육지식을 비교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정확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429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정보 습득경향과 양육지식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첫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경우 주변인, 인터넷, 책, 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과 친구 및 도우미 등 전문성 보다는 편의성이나 친숙성 등에 의해 습득경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변인 못지않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던 결과는 첫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양육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개인의 이전 양육경험을 주요 정보출처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주변인을 꼽았다. 이전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경향은 이전 양육경험이 이미 지식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개별 자녀의 다양성 및 독특성을 고려할 때 이전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 지식은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한자녀 어머니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지식 평균점수를 비교해볼 때 가능한 해석이라 하겠다. 즉, 두 자녀이상 어머니의 경우 이전 양육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녀 어머니보다 다소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 양육경험이 양육정보의 측면에서는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이 주로 얻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신체발달 및 의학관련 정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자녀가 영아기 및 걸음마기이기 때문에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한 건강 및 안전, 위생 등에서 취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더 얻고자 하는 정보로 훈육정보를 꼽았는데, 이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애착형성, 훈육 등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관심은 물론 그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훈육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전 자녀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아의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실제 훈육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양육정보의 제공 시 실제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즉, 기본적인 신체 발달과 건강 및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해당 시기의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는 애착형성, 그리고 훈육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머니들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 그들의 양육지식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한 자녀 어머니의 양육지식 습득경로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인터넷/책/전문가에게서 그리고 30대 이상은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습득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녀양육이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처음 시작하는 한 자녀 어머니들에게 있어 자녀 양육은 두렵고도 신기한 전혀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아마도 가능한 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양육정보를 얻으려 할 지 모른다. 이 때, 20대의 젊은 어머니들은 그들 세대에 익숙한 인터넷이라는 보다 빠르고 방대한 정보를 선호할 수 있다. 반면 30대 이상 어머니들은 이미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친구 등 주변인인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책 등의 습득경로뿐 아니라 주변인으로부터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편 두 자녀이상의 어머니는 학력집단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에

사용한 세 학력집단 모두에서 대개 이전 양육경험을 주요 출처로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졸이상 집단은 고졸이하나 전문대졸 응답자에 비해 부모/주변인보다는 인터넷/책/전문가를 통한 지식습득 경향을 보고함으로써 학력이 높을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은 어머니들은 친인척이나 이웃에게서 양육정보를 얻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Ninio, 1979)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넷째, 연령 및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육지식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한 자녀 어머니는 연령, 학력,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모든 주효과와 학력\*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0대 보다는 30대이상 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변인보다는 전문집단에게서 양육정보를 얻을수록 양육지식 점수가 높아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면서 부모/주변인에게 양육정보를 얻는 집단의 양육지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정확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특히 연령과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양육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들로 하여금 부모나 주변인보다는 책이나 전문가, 신뢰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두 자녀 이상 어머니 집단 역시 연령, 학력,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육지식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주변인 보다는 이전양육경험이나 전문가 집단에게서 양육정보를

언을 경우 더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정보 습득경로 중 이전양육경험이 부모/주변인보다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인 것은 아마도 이전양육경험이 100% 정확한 양육지식이라기 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실제적 경험에서 검증해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개별적인 독특성이나 시기적인 특성, 가정환경적 요인, 어머니의 연령 등의 면에서 이전 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다음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집단의 그것보다는 다소 덜 정확할 가능성을 있음을 보여준다. 두 자녀 어머니의 연령\*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는 특히 20대이면서 부모 및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할 경우 가장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정확한 양육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으면서 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어머니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양육에 대한 정확한 양육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요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문적 양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는 자녀양육의 초기단계이며 자녀들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어머니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양

육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과 학력에 따라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차이보다는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의 질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즉,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인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에서의 차이는 연령,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서 발생하는 일차적인 차이가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차적이고 더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는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주변인보다는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장점을 알려주고 실제로 연계해주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자녀양육 경험 여부는 물론, 그들의 연령과 학력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정확한 양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 예로 연령이나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에게 각 지자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양육정보 책자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무료상담도 전문적인 양육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표집이 서울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식 측정도구는 문항에 따라 0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응답자의 자녀 월령은 개인에 따라 2개월일 수도 있고 30개월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은 자녀의 현재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Tamis-Lemonda et al., 1998) 이러한 경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보다 나이가 있는 아기들의 발달에 관한 지식점수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월령을 세분화한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양육정보 습득경로를 구분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전양육경험은 명확히 본인의 실제적인 과거경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응답자들이 본인의 경험에 의한 지식과 과거 책이나 주변인을 통해 얻은 간접지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책/전문가 집단의 경우 책과 TV, 전문가는 순수한 전문가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인터넷은 전문사이트뿐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처럼 비전문적인 정보사이트도 공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비록 설문조사 시 항목을 인터넷 전문사이트로 명시하였으나 응답자마다 전문사이트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전문사이트의 경우에도 자유게시판이나 댓글 등에 올라오는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습득경로를 더 세분화하여 양육지식 점수를 분석할 수도 있으며 혹은 습득경로별로 해당 정보의 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특성을 지닌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객관적인 양육지식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의 질을 그 내용면에서 평가하기보다 어머니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적용하여 지식으로 축적하는 정보의 실용적인 면에서 평가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보습득경로의 효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양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용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참 고 문 헌

- 김정화(1999). 영아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 김상희 · 김지신 · 박응임 · 전춘애 · 임희수 (2003).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송연숙 ·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윤형주 ·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이근영 · 장유경 · 임현정(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 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 이선미 · 장정미(2009). 임신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51-273.
- 이주연(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 양육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 47(5), 35-48.
- 이화자 · 이승아 · 김명희 · 김영혜 · 박남희(2004).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자신감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3), 262-271.

- 최유리(2006). 어머니의 육아방식 및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 : 12개월 이하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순옥 · 김성혜(2008).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의 상호작용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55-71.
- Altman-Klein, H., & Cordell, A. (1987). The adolescent as mother early risk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7-58.
- Benasich, A. A., &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1186-1205.
- Bigner, J. J. (2006). *Parent-child relations :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Bornstein, M. H., & Cote, L. R. (2004). "Who is sitting across from me?" Immigrant mothers' knowledge of parenting and children's development. *Pediatrics*, 114(5), 557-564.
- Conrad, B., Gross, D., Fogg, L., & Ruchala, P. (1992). Maternal confidence, knowledge, and quality of mother-toddler interaction : A preliminary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353-362.
- Furstenberg, F., Brooks-Gunn, J., & Chase-Lansdale, L. (1989). Teenaged pregnancy and childbearing. *American Psychologist*, 44, 313-320.
- Goodnow, J. J. (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L., Brown, & B. Rogo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193-242). Hillsdale, NJ : Erlbaum.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86-320.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 (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3-437.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9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85-298.
- Larsen, J., & Juhasz, A.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 39-54.
- MacPhee, D. (1981). *Manual :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as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99.
- Maloni, J. A. (1994). The content and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about the infant.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4), 111-120.
- Mann, M. B., Pearl, P. T., & Behle, P. D. (2004). Effects of parent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Adolescence*, 39, 355-360.
- Miller, B. C., & Moore, K. A. (1990).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natancy, and parenting :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25-1044.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Ninio, A. (1979). The naive theory of the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Parks, P. L., & Smeriglio, V. L. (1983). Parenting knowledge among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4, 163-167.
- Reich, S. (2005). What do mothers know?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2), 143-156.

- Richman, A., Miller, P., & LeVine, R. (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14-621.
- Riley, D., & Waterston, T. (2002). Helping teenage mothers with child rearing advice : Report on an intervention. Paper presented at meet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olescence. London, UK.
- Riley, D., Meinhardt, G., Nelson, C., Salisbury, M. J., & Wimet, T. (1997). How effective are age-paced newsletters for new par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s of earlier studies. *Family Relations, 40*, 247-253.
- Sparling, J., & Lowman, B. (1983). Parent information needs as revealed through interests, problems, attitudes, and preferences. In R. Haskins & D. Adams (Eds.), *Parent education and public policy* (pp. 304-323). Norwood, NJ : Ablex.
- Stevens, J. H., Jr. (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 *Family Relations, 33*, 237-244.
- Tamis-Lemonda, C., Chen, L., & Bornstein, M (1998). Mothers' knowledge about children's plan and language development : Short-term stability and inter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15-124.
- Tamis-Lemonda, C., Shannon, J., & Spellman, M. (2002).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knowledge about domains of child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 88-103.

---

2010년 5월 1일 투고, 2010년 7월 12일 수정  
2010년 7월 19일 채택